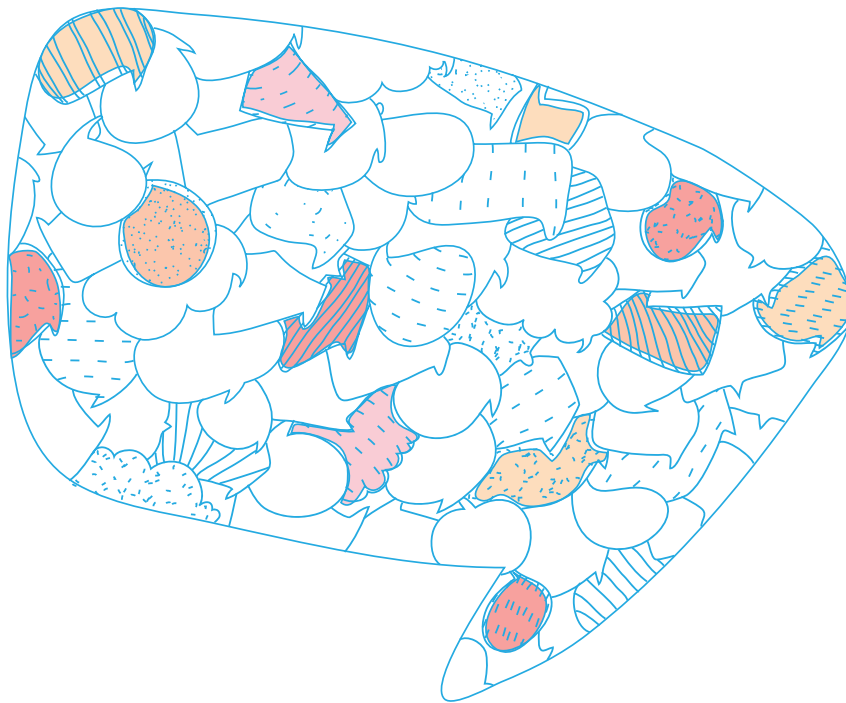


2012 와글와글 포럼 운영자료집

와글와글 포럼



 수원시평생학습관

목 차



들어가며

- 06 인사말
- 10 와글와글 포럼이란

2012 와글와글 포럼

- 14 1차 포럼 : 와글와글 기획 포럼
- 22 2차 포럼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30 3차 포럼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 38 4차 포럼 :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 46 5차 포럼 :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

나오며

- 58 편집후기
- 62 2012 와글와글 포럼이 우리에게 남긴 것
- 65 함께한 사람들

들어가며

인사말
와글와글 포럼이란

우리는 나보다 현명하다 (We are smarter than me)

이성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와글와글 포럼 추진단장



최근 기업경영에서 HRD의 떠오르는 화두를 몇 가지 꼽아본다면 '전략적 민첩성', '집단지성', '이타적 공진화'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기도 한 이 키워드들은 우리 와글와글 포럼의 지난 1년을 대변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전략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세계최고의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INSEAD의 Yves Doz 교수는 저서 『Fast strategy(2008)』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 전략을 수정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요지는 전략적 민첩성의 유지와 쇄신만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예리한 인식 및 감지능력인 전략적 감수성(Strategic Sensitivity), 기업구조를 변경하고 자원 및 인력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능력인 자원 유동성(Resource fluidity) 그리고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집단적 몰입(Collective Commitments)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집단적 몰입은 전체 구성원들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더욱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신속하게 시도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된 지적 능력의 결과로 개인적, 집단적 능력인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각 개체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는 소위 초유기체성(superorganism)을 만들어내는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 공진화는 이렇게 개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루는 양상을 학습의 생태학적 모습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공진화라는 개념은 1964년 생물학자 Ehrich와 Raven이 나비와 식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종들의 호혜적 진화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후 진화학자 Mayer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쪽의 적응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생물들 간의 서로 비슷한 양상의 진화현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공진화 중 이타적 공진화라는 개념은 꿀벌과 꽃 또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생존, 성장하며 진화한다는 것을 압축·설명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모습에 대비해보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색하는 우리의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 성장의 매개체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자극해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글와글 포럼 1년을 돌아보면 공동체 내에서 학습의 핵심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 연계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공동체 자체의 변혁의 과정이며, 구성원 상호 간의 이타적 공진화는 공동체의 성장에 핵심적 발달기제로서 공동체에 작용한다는 한승희 교수님의 역설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평생교육의 도반들을 만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까? 우리 시민들에게 적시(Just In Time)에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어떤 강사님을 모시는 것이 효과적인까? 열정적으로 다른 기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낯선 얼굴들은 친숙한 동료로 바뀌어 갔고, 이게 맞는 것인가? 막연하고 조마조마했던 고민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지나간 실패의 경험조차 귀한 공부가 되는 성찰거리였습니다. 따로 존재하던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담당자 각자가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만남의 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의문들은 결국 집단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풀리는 짜릿함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통해 우리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참석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빠지면 업무가 마비되기도 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과 겹치면 2개월에 한번 진행되는 포럼도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나누고 토론하다 보면 문제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안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포럼이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젠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모여서 떠들고 논의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한다는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2013년에도 계속 '와글와글' 하려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기관이 어떤 교육기관보다 전략적으로 민첩해지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와글거리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집단적 지성이 탄생함을 맛보기 위해, 그리고 함께 도어가며 성장하는 이타적 공진화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더 시끌시끌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소통’이라는 말은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와서인지 이제는 ‘소통 피로증’이 생길 정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여전히 핫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안철수 현상과 맞물리면서 오늘도 소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사회 곳곳을 유행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의 소통부재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막힌 곳을 뚫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이 2011년 9월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도대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살펴보니 평생교육기관 간의 유의미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망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전적 의미로 되돌아간다면 ‘막힌 곳을 잘 뚫어서 잘 통하게’ 한다는 것은 일단 기존의 통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관련 기관들과 유의미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일방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만 진행되어서는 곤란한 일인데 하물며 상호 소통을 하자는 네트워크음에라. 일방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지독한 짝사랑이거나 무식한 명령체계로 전락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레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관련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류와 소통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낙관적 태도와 불굴의 집념이 일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만큼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관련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반은 성공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장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고로움만을 들이고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남은 장사였습니다.

1967년 3월 경인고속도로 착공 이후 전국에 수많은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 외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이 뱅뱅 뚫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과잉 건설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도로망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렇게 시멘트를 쏟아 부은 도로가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수원의 경우 이제 작지만 소중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불필요한 과잉 건설로 도로(道路)가 도로(徒勞)가 되어 버린 현실처럼 자칫 쓸데없는 일을 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네트워크가徒勞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망을 타고 다양한 것들이 오고가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도로가 되느냐 과잉 도로가 되느냐의 핵심은 그 망을 이용하는 내용의 질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와글와글 포럼이라는 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교류가 이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확인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의 포만감보다는 결핍의 허기를 더 느낍니다. 좀 더 풍부하고 알찬 콘텐츠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목적의식적이면서 지속적인 안받침을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항용 첫 시작은 늘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힘을 보태 포럼을 잘 이끌어 주신 추진단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포럼이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바글바글’해지고 그래서 더욱 ‘시끌시끌’한 ‘와글와글 포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와글와글 포럼이란

정의

평생학습 실무자들이 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고민과 현안을 나누며 집단 지성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출하고,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익히는 열린 포럼이다.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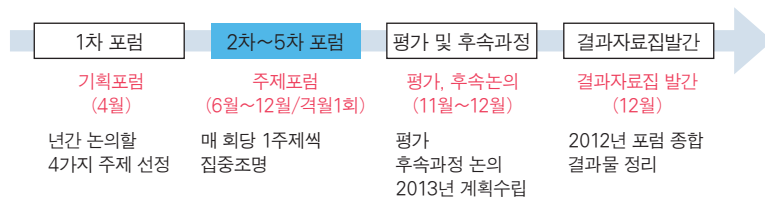
- 실질적인 이슈와 주제를 다루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별 협력과 연대 강화
- 수원 평생학습의 공통 이슈와 문제에 대해 집단 지성 발휘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 평생학습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평생학습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운영체계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경력자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 와글와글 포럼의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 기획, 운영하였다.

추진단장	이성엽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수원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진단원	최라영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사)
(가나다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팀장, 권선구 소재)
역순)	임숙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영통구 소재)
	이민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팔달구 소재)
	유승이 (장안구민회관 주임, 장안구 소재)

진행과정



포럼 개요

1. 1차 포럼

취지

2012년 한 해 동안 와글와글 포럼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용을 미리 맛보고 연간 다룰 주제를 참가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논의한다.

타 포럼과의 차이점

- 참가자들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가 포럼의 주제가 된다.
- 기획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다채로운 최신 워크숍 기법을 활용한다.
-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소개하는 데 참여한다.
- 강의와 토의에 그치지 않고 논의 결과를 캠페인, 정책 제안 등으로 연계한다.

운영

- 일시 : 2012년 4월 19일 (목) 09:30 - 17:30
- 장소 :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대상 : 수원 내 평생학습기관 소속 실무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40여 명
- 비용 : 1만 원

2. 2~5차 포럼

주제

순서	일시	시간	주제
2차	6월 20일 (수)	13:30-18:00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3차	8월 22일 (수)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4차	10월 18일(목)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5차	12월 13일(목)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 실무자의 비전

운영

- 시기 : 짝수 달 셋째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1시 반 - 6시
- 장소 :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대상 : 수원 내 평생학습기관 소속 실무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40여 명
- 비용 : 4회 차 포럼 동시 수강 시 3만 원, 개별 수강 시 회당 1만 원
- 구성 : 매회 해당 주제를 다루되,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방식 : 주제 강연과 사례발표, 토론과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참여 형 포럼

예시(안)

시간	내용	교육 기법
13:30~14:00	[포럼열기] 당일 포럼 소개 및 해당 주제의 영상 관람	TED, Forum Network, UC TV, MIT OCW 등
14:00~16:00	[주제강연] 전문 강사를 통한 통한 주제 학습	Living Library, Ignite, LETS Conference 등
16:00~17:30	[사례발표 및 주제토의] 주제별 사례학습과 참가자와의 연관성 찾기	World Cafe, Bar Camp, Open Space Technology 등
17:30~18:00	[Group Work] 포럼 내용 정리 및 소감 나누기	PMI 등

※ 매회 주제에 따라 구성안은 달라질 수 있다.

2012

와글와글 포럼

1차 포럼 : 와글와글 기획 포럼

2차 포럼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3차 포럼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4차 포럼 :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5차 포럼 :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

와글와글 기획 포럼

목적

- 와글와글 포럼의 기획의도에 대한 이해 촉진
- 참가자 간 어색함과 긴장감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관심 유도
- 와글와글 포럼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 새로운 교육기법을 3개 이상 경험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일시 2012년 4월 19일 (목) 09:00-17:30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기법
09:00~09:30	등록	
09:30~10:30	만남과 교류의 시간	3키워드, 소셜네트워크게임
10:30~11:30	[오프닝 특강] 새 시대의 지성과 소통방식	강사 : 조양호
11:30~12:30	점심식사	
12:30~14:30	[워크숍 1] 와글와글 포럼에서 나눌 주제 선정	
14:40~16:50	[워크숍 2] 수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월드카페 진행자 : 이창림
17:00~17:30	[회고] 참가자들의 소감 공유	



강사
 조양호
 더체인지 대표
 씽크카페 기획코디네이터
 다음세대재단 Project Director,
 <비영리단체를 위한 IT지원센터> 팀장

이창림
 마을신문 도봉N 창간, 편집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2011)
 씽크카페 운영코디네이터
 (사)마을 교육의제 팀장

01 몸 풀기

와글와글 포럼. 이름도 생소한 모임에 수원 평생학습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 내 현안을 나누는 자리에서 얼굴을 몇 번 본 이도 있고 낯선 이들도 많았을 터. 다들 한 스푼의 긴장과 두 스푼의 설렘을 담고 하루 일과를 함께 했다.

1차 포럼은 올 한해 와글와글 포럼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획포럼으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원 내 학습기관 종사자들이 최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교육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강의와 워크숍이 운영됐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고민을 하며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며, “함께 의기투합하여 같이 가자.”는 이 성업 와글와글 포럼 추진단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참가자들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자신을 알리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3개의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기, 서로가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지 알아 보기 등 게임형태로 1시간 반 가량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나눴다.

02 듣기

이어 더체인지 조양호 대표의 <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다. 조양호 대표는 사람들이 얻는 정보가 넘쳐나



고 폭넓은 관계형성이 용이해졌으며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주거나 소외시키는 행사와 조직에 갇혀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최근의 시대 변화를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의 방식이 새로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표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3 말하기

오후시간에는 참가자가 평생학습 직군에 종사하면서 느낀 여러 애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월드카페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나열해보고 비슷한 의견끼리 묶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 모듬을 형성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포럼에서 나온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2. 기관과 프로그램을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실무자 개개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4. 기관 및 실무자 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열띤 논의와 토론 속에서 나온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현상과 원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1) 왜 안 될까?

- 담당자가 없다. 있어도 1명이 모든 걸 다 맡는다.
-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 학습자가 요청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지 않다.
- 지역주민의 욕구파악이 힘들다.

2) 어떻게 해결할까?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을 통해 인력을 전문화한다.
- TFT를 구성해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1) 현재 기관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을까?

- 신문 삽지를 넣거나 아파트, 상가, 약국에 전단지를 비치한다.
- 신문은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성도 떨어지지만 대체할 만한 획기적 방법을 찾지 못했다.
- 오프라인 전단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전달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 추가로 지역홍보지나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2)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 기관 간 홈페이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수원 내 각 기관 정보를 비치해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 오프라인 광고를 한다면 공동의 책자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예) 아파트 내 상점안내지
- 교육생들의 입소문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3. 개인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1) 왜 안 될까?

- 학습에 대한 관심을 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 실무자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 근무시간 외 이뤄지는 교육은 수강하기 어렵다.

2) 필요한 교육내용은?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회원들과 공감하는 법
- 기타 다양한 직무교육

3) 개인(실무자)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 네트워크를 통해 기획을 교류한다.
- 실무자를 위한 더 많은 교육기회가 필요하다.
- 학습동아리를 만든다.
-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 수원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복지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 의무교육시간을 둔다.



4.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1) 어떤 문제가 있나?

- 네트워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예) 개별 기관의 교육 홍보로 인력 및 예산 소모
- 담당 행정부서가 각기 달라 사업 공유가 어렵다.

2) 해결방안은?

- 종합홍보물이 필요하다. (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강사DB 공유
- 큰 규모의 기관이 소규모 기관을 컨설팅 및 교육하는 품앗이가 필요하다.
- 평생교육, 복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등 분야별 경계 넘기가 필요하다.
- 시스템은 천천히 갖춰지더라도 실무자 간 소모임 등을 통한 개인 간 네트워크를 우선 만들자.

04 생각하기

1차 포럼 후기

포럼이 와글와글 하다고?

이지은 (수원YMCA)

와글와글 포럼?

처음 이 포럼에 대한 홍보지를 봤을 때 포럼 제목이 흥미를 끌었다. 평생교육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인데, 제목이 '와글와글'이라니! 제목을 봐서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하는 포럼이라는 것도 걸리고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포럼이라 지루한 토론만 오갈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럼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변에서 이번 포럼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계속 와글와글 포럼이 생각나서 결국 포럼 하루 전날! 신청을 해버렸다. 포럼 당일! 와글와글은 내가 생각했던 딱딱한 포럼이 아니었다. 모듬별로 놓여



있는 테이블과 귀여운 현수막!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재미있게 포럼을 이끌었다. 강의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신선하고 필요한 정보들로 꾸려져 있었다. 점심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는 미션에 고민 나눔과 새로운 대안을 발견할 수 있었던 토론시간까지!

수원시의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의 실무자들을 만나는 기회이자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배워가는 포럼이었고, 하루 쉽의 시간이자 평생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포럼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될 포럼이기에, 이번 1차 포럼의 아쉬움과 이 여운을 접고 다음 포럼의 기대로 첫 '와글와글 포럼'을 마쳤다.



1차 포럼 평가

기존의 방식
 심을 고집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탈피하여 모에서 나누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의 후
 주제별 논의를 통해 다음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온라인의 세계에 대해 인식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같은 고민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리함게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기관들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모임과 포럼을 통해 오늘 이야기 나온 고민들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얻어가는 것보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레크리에이션 - 보물찾기

보물찾기

물건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여러 군데 감추어 놓고, 그 종이를 찾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물건을 상품으로 주는 놀이.

보물찾기를 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을 활용한 참가자 간 친밀도를 높이고, 수원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사전준비

1. 2인이 짝이 될 수 있도록 메모를 적어 접는다. (예) 성춘향-이몽룡, 로미오-줄리엣
2. 예상되는 시간을 산정해 질문을 준비한다.
3. 한 장의 종이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적어 질문지를 참가자 개수 절반만큼 준비한다.

현장진행

1. 주머니 안에 넣어둔 접은 종이를 참가자가 뽑게 한다.
2. 종이를 펼쳐 자신의 짝을 찾는다.
3. 모두가 짝을 만나면 팀별로 한 장 씩 질문지를 제공한다.
4. 짝꿍이 함께 질문의 정답을 찾는다.
5. 정답을 모두 맞춘 팀에게 선물을 제공한다.

질문지 예시

1. 수원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년도는?
2. 질문은 정문 앞 경비 초소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3. 와글와글 1차 포럼을 함께 하는 사람 중 최연소자는 누구일까요?
4. 1층 상담실에 가면 질문과 함께 힌트 3개가 숨겨진 곳을 알려 드립니다.
5. 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관기념 사진 전시회의 인물 중 외국인은 총 몇 명일까요?

※ 질문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나 주회 측에서 안내하고 싶은 문항을 정리하여 준비하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목적

- 평생교육의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
-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여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고취
- 기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형태와 소재를 이해
-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도구 1가지 이상 소개

일시 2012년 6월 20일 (수) 13:30-18:00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및 진행
13:30~14:00	등록 / 참가자 간 인사 나누기	
14:00~16:00	(강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교육	고병현
16:00~17:30	(사례발표) 회원조직에 기반한 시민교육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주은경
17:30~18:00	(회고) 참가자들의 소감 공유	



강사

고병현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대한학교의 모델과 실천』등 책임 편집

영국 Glasgow University 박사과정

런던대학교 Institute of Education 특별과정 수학

주은경

참여연대아카데미 느티나무 부원장

〈시민교육〉 기획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기획실장

KBS 추적60분, 인물현대사,

시사투나잇 등 방송구성작가

01 몸 풀기

첫 만남이 간 보기였다면, 두 번째 만남은 실전이다. 2차 포럼부터는 1차 포럼에서 선정한 네 가지 주제를 한 차례 씩 돌아가며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4개의 주제 중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2차 포럼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시대의 흐름과 평생교육이 해야 할 일, 평생교육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타 기관의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를 거울로 비춰보기로 했다.

출석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2차 포럼의 문을 연 첫 영상은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에 소개된 송인혁 TEDx Seoul Organizer의 〈창의성은 우리 사이에서 나온다〉이다. 혁신적인 사고는 특정 인물의 천재성이나 창의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필요성과 해결책이 나온다는 짧은 강의였다. 왜 우리가 와글와글 포럼을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이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였다.

영상을 시청한 뒤 1차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실무자들을 위해 Prezi를 활용한 와글와글 포럼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엘리베이터 스피치 방식으로 참여한 모두가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02 듣기

첫 강의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교육>이란 제목으로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가 문을 열었다. 신 내린 무당 굿 하듯 열정적인 교수님의 강의에 참석자 모두가 빨려 들어갔다.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교육

이미 현대사회는 고령화, 개인화 등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평생학습사회라는 건 사회의 변화를 칭하는 용어와는 다른 범주의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평생 학습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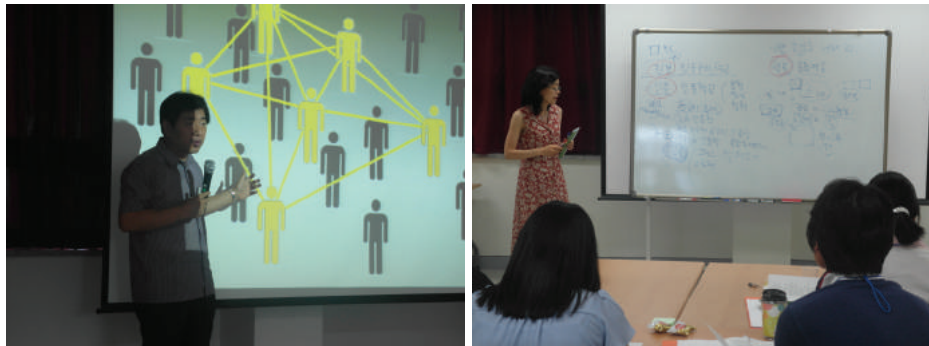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지역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관계로 표출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핵심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역과 문화가 결부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듣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 아닌 미래의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은 변화된 미래 시점에서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 존재가 곧 교육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떠올려보자. 우리는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늘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미래로 올라가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람들과 공명하고,

에 가려져 있는 그림자 같은 곳을 찾아 서울을 그리면 도시계획을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감이다. 기획자가 하고 싶은 것과 대상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고, 나 스스로가 감동할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공간과 내가 머무르는 공간의 특징과 차이를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은 연극의 3요소처럼 기획자, 강사, 수강생으로 이뤄진다. 기획자는 PD다. 여기 모인 기획자들은 이 세 주체가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것에 감동 받고, 기획의 역할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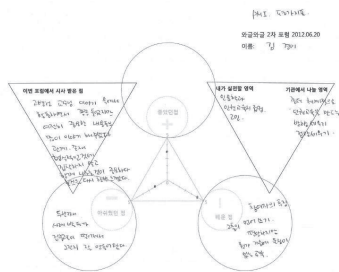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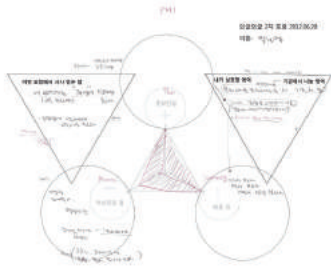
03 말하기

강의와 사례발표가 끝난 후 PMI기법을 활용하여 2차 포럼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과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Tip. PMI 기법

(1) PMI기법이란 무엇인가

이 방법은 De Bono(1973)가 고안한 기법으로 특정한 대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한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한 문제 해결자 나름대로



의 판단에 의해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다. PMI기법은 제안된 아이디어의 장점(Plus), 단점(Minus), 그리고 흥미로운 점(Interesting)을 따져 본 후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기법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이디어를 산출할 때, P, M, I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법은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합되어 작용하는 사고의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 보다 냉철한 판단아래 사고를 전개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 P(plus) : 아이디어에 대한 좋은 점(왜 그것을 좋아하는가?)
- M(minus) : 아이디어에 대한 나쁜 점(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 I(interesting) : 아이디어에 관해 발견된 흥미

(2) PMI의 원리

- ① PMI가 없다면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을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PMI는 중요하다.
- ② PMI가 없다면 매우 좋은 의견처럼 보이는 것의 단점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③ PMI는 아이디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흥미로운 점까지 보여준다.
- ④ PMI가 없다면 그 의견의 좋고 나쁜 점에서도 아닌 그 당시의 감정에 의해서 대부분 판단할 것이다.
- ⑤ PMI로 미리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에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진행절차

- ① PMI의 의미를 집단 구성원들에게 설명한다.
 Plus(강점) 제시된 아이디어의 좋은 점
 Minus(단점) 제시된 아이디어의 나쁜 점
 Interesting(흥미로운 점) 제시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

생각되는 점

- ② 각 영역별로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 ※ P를 고려할 때에는 P에만 집중(M, I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한다.
- ③ PMI 결과를 발표한다.
- ④ PMI 결과를 논의한다.

[참고] 『교수·학습 적용을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 김홍렬, 창의력 개발 교육, 대구광역시 교육청, 2002 (De Bono. Six thinking hats. New York: Penguin Books, 1985)

04 생각하는

이번 2차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획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우고, 나부터 성찰하고 기관에 돌아가 포럼 내용을 나누겠다고 회고했다.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목적

- 비영리 마케팅의 개념과 특성 이해
- 마케팅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추세 파악
- 참가자들 간의 친밀감 형성 및 업무 노하우 공유
- 교육운영에 필요한 워크숍 및 레크리에이션 기법 2가지 이상 학습

일시 2012년 8월 22일 (수) 13:30-18:00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및 진행
13:30~14:00	등록 / 참가자 간 인사 나누기	
14:00~16:00	(강의)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기초	방대욱
16:00~17:00	(워크숍) LETS를 활용한 실무 노하우 나누기	수원시평생학습관
17:00~17:30	(회고) 참가자들의 소감 공유	

강사

방대욱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General Director, 2004년~현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팀장
(기획 및 사업총괄, 2000년~2004년)

삼성복지재단 대리
(복지, 보육, 인사 및 기획, 1994년~2000년)

01 몸 풀기

8월. 한여름 무더위보다 살 떨리고 걱정되는 게 바로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아닐까?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 실무자들에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들고 시민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프로그램 기획 못지않게 잘 만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내하고 전달하는가도 중요하다. 3차 포럼에서는 기관 및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케팅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배우고, 각자가 현장에서 갖고 닦은 능력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늘 그렇듯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한 몸 풀기 게임으로 추억의 빙고 게임을 진행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빙고는 주로 5X5 형태의 칸에 숫자나 단어 등을 적어놓고 서로 불러가면서 가로 세로 대각선 형태의 직선을 만들어나가는 형식의 게임이다. 이번 빙고 게임은 수원의 200여 개 기관 중 25개의 기관 이름을 적어 가장 먼저 다섯줄을 만드는 조가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게임은 참가자들은 수원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평생학습기관들이 있는지를 비롯해 주민자치센터와 공부방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등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놓치고 지나갔을 법한 사실을 재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02 듣기

3차 포럼에서는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기초>란 이름으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상임이사가 주제 강연을 해주셨다. 예의 유쾌한 목소리로 마케팅의 기본에 대해 재치 있게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기초

비영리 마케팅은 일반 제품시장에서의 마케팅과 필요한 자원과 방법은 유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건 바로 “미션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Brennan이 말했듯, “기부시장은 거래(Transaction)보다는 관계(Relationship)가 중심이 되고, 이러한 관계 형성은 제품 자체의 특성보다는 기관의 미션과 신뢰성이 보다 중요”한 경향이 있다. 비영리기관 실무자는 마케팅을 하기 전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Mission),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Vision),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Strategy)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고전적인 마케팅의 정의는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케팅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Positioning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성공적인 Positioning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 표적시장, 표적고객을 잘 선정하였는가?
- 언제 우리 브랜드의 구매가 고려되는가?
- 우리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브랜드의 차별점과 고객들의 목표가 연결되었나?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은 물론 아직도 유효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고전적인 마케팅 너머 새로운 소비자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Memory → Action의 과정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면, 최근에는 Attention → Interest → Search → Action → Share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 평이다. 이미 구입하고 나서 다음 잠재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소감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요즘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마케팅의 정의와 일반 시장에서의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비영리마케팅의 특징, 최신 마케팅의 흐름과 변화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결국은 내용이다. 좋은 콘텐츠야말로 마케팅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사명을 점검하고 다시 나누고 우리가 마케팅 할 것들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03 말하기

방대욱 상임이사의 흥미로운 마케팅 강의를 들은 후, 참석자들 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LETS의 형식을 빌었는데, LETS는 공동체 안에 이미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나누지만, 이번에는 와글와글 포럼 참석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관 실무자로서 나눌 수 있는 무언가로 한정하여 진행했다.

먼저 LETS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을 본 뒤 미리 준비해놓은 벽에 포스트잇을 활용해 각자 배우고 싶은 것과 알려주고 싶은 것을 적어 붙였다.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그룹을 크게 키우는 법
- 특별한 수수료, 또 다른 홍보 : 감동으로 입소문 파도타기
-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법
- 시기에 따른 홍보법
- 온라인,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법
-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홍보하는 법
- 충성 회원을 만드는 법 : 고객 욕구 파악하기

04 생각하기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인 당 2회씩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소속기관의 특성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소소하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어권 3차 포럼 (12.08.22)

TABLE Name:

알려주는 이	송 은 정
배우는 이	소그룹 크기 규하는 방법
나누는 주제	장점점, 박사의 유습이, 컴퓨터, 문화어, 한국어
심리하는 이	장 지 훈

작업만 사립(장학) 진행 → 사람들이 떠나볼 용제점 방법 → '동아리' 전략, 기동 참여자 각 자원봉사자들은 모집 → 네트워크 창동 / 15명 이내의 동아리 간사

- 교육 서약서 (한달 1시간 15분씩 12주) 작성하도록 함
- 동아리 모집이 가능한 공간 제공
- 장동 중 3개월에 1회 회의 (중간 점검, 요구 파악) - 구제고 변형이 생겨도 무인도 지출됨
- 실제 프로그램은 관리, 장학하는 것도 동아리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기본 3명 이상 동아리 이상으로 꾸미기 권장...)
- 기존 동아리와의 협약 관계 활용 : 지역 사내비 협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 후원금 확보 → '공공' 과제 형에 교육용 방동용 레드리고 캠프에서 프로그램 진행
- 협동조합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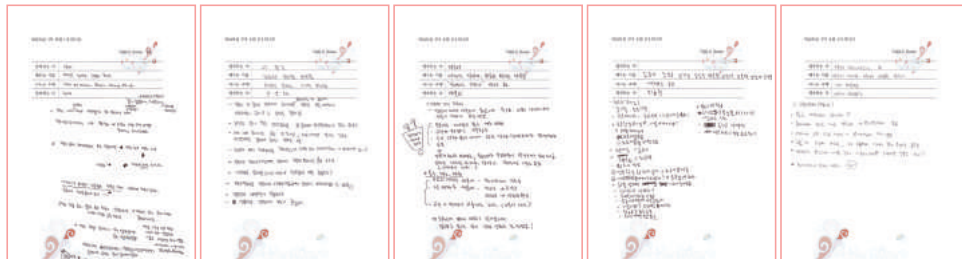
동아리 활동이 관계 : '수입'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권동되라. 수역사까지 지출할 수 있는 방안? 민/관 기관의 차이가 있음

동아리 구성 및 동아리 위치, 준비 등을 장학과 관리하는 방법 - 기관 관리자가 참여

동아리가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필드 전략을 활용 가능한 방안?

- 세운들 의어분역 (바른대 노년복지관)하고 2년 6개월 이후 의의로 찾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자정봉사 아랍까지 가는 활동





3차 포럼 후기

'와글와글'에 몸 담다

장선경 (수원체육문화센터)

'와글와글' 어감만으로 이런 느낌이 든다. 서로가 각자의 말을 하느라 시끄러운 느낌이 아닌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생각들을 표현하느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느낌이랄까?

마케팅이란 방대한 세계를 두 시간 여 동안 압축하여 엮기스만 뽑아 주신 방대옥 강사님. 마케팅에 무지한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치찌개 일화(!?)를 통해 우리 귀에 쫄쫄 남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Mission - Vision - Strategy.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기관에 속해 있던지 소속기관의 미션을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또한 강의 이외에 LETS라는 방식을 통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통해 각자가 가진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생학습실무자로서 경험 치와 성과가 다르기에 각자 다르기에 모두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요즘 들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함에 웬지 모를 답답함에 놓여있었다. 그 해답을 바로 여기, 와글와글함에서 찾았다. Mission 찾기와, 나와 함께 Mission, Vision, Strategy를 함께 할 3명 이상의 아군 만들기. 당장 실천하리라.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있을 것 같다.

3차 포럼 평가

생소한 LETS를 활용하여 다른 분들의 정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Mission을 먼저 알고 방향성을 알지 말라는 얘기 좋았습니다.

홍보의 중요한 요점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포럼 중 가장 현실적용성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날로 발전하는 와글와글~

LETs를 이용한 새로운 논의방법을 배웠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정보가 모아졌습니다.

교육이 왜 안 되었지? 프로그램에 왜 사람들이 안 오지? 불평불만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차근차근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워크숍 - LETS

LETS

렛츠(LETS)는 Local Energy Trading System의 머리글자를 합친 말인데 지역 화폐운동인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가 2010년 3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창작자들을 위한 렛츠 컨퍼런스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속해 있는 영역, 분야가 달라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자,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배움을 교환하면서 전혀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오히려 새로운 협업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사전준비

1. 참석인원에 따라 테이블을 배치한다.
2.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기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한다.
(예) 스티커, 싸인펜, 색연필, 메모지, 전지, 포스트잇 등
3. 배움거래 장터를 위해 배우고 싶은 것과 알려주고 싶은 것을 선으로 구분한 벽을 만든다.

현장진행

1. 6명이 앉을 수 있는(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리에는 창의적인 생각과 나눔, 기록들을 위한 도구들을 준비해놓는다.
2. 참석한 사람들끼리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3. 미리 준비된 벽에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각자 배우고 싶은 것들과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붙인다. (이때 포스트잇의 색깔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4.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종이를 떼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자신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손을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목적

- 지역 내 기관들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운영과정을 광명시의 사례를 통해 알아봄
- 경기도와 수원시의 2012년도 사업과 2013년도 계획을 알고 2013년도 소속 기관의 사업계획과 연계해볼 수 있음

일시 2012년 10월 18일 (목) 13:30-18:00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및 진행
13:30~14:00	등록 / 참가자 간 인사 나누기	
14:00~16:20	[강연] 광명시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	신민선
16:20~17:30	[사례발표] 발표 1. 수원시 2013년도 사업 소개	최라영
	발표 2.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013년도 사업 소개	박소영
17:30~18:00	[회고] 참가자들의 소감 공유	



강사

신민선

광명시평생학습원장

前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관장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 등

최라영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사

박소영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전략실원

01 몸 풀기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마케팅. 지난 2, 3차 포럼에서 다룬 이 두 가지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업무였다면, 이번 4차 포럼의 주제는 “네트워크”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요즘이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사업목표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필요성은 알지만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를 주제로 하는 만큼 이번 4차 포럼은 ‘무언의 칠교놀이’로 시작했다. 한 사람 당 무작위로 일곱 개의 조각을 나눠주고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조각의 총합은 인원수대로 동일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지만 각자에게 동일한 조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만약 내가 가진 조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없다고 여겨진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조각을 하나 주고 다른 조각을 받아올 수 있다. 말을 하지 않고 조 구성원 모두가 일곱 조각으로 정사각형을 만들면 완성이다. 나의 무언가를 버려야 타인에게 조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끝이 난다는 점 등 무언의 칠교놀이는 우리가 네트워크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알게 해주는 놀이였다.

간단하게 무언의 칠교놀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성격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강의와 사례발표 시간으로 넘어갔다.



02 듣기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은 많다. 이번 4차 포럼에서는 그 중 광명시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다. 광명시는 1999년 전국에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바 있고, 광명시평생학습원은 2002년부터 성공회대와 서강대가 총 9년간 민간위탁을 해왔고 2011년부터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운영주체의 변화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던 광명시의 사례는 네트워크를 고민하는 수원시에도 적잖은 의의를 제시했다. 광명시의 사례는 신민선 광명시평생학습원장님이 안내해주셨다.



광명시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례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형태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역 상황에 맞게 네트워크를 재구조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두고 싶다. 각 지역별로 역사와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평생학습원을 처음 건립할 때부터 왜 평생'교육'이 아니라 평생'학습'인지 지역민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에 잘 자리 잡았고, 이미 평생학습이 오랜 기간에 걸쳐 뿌리 내린 곳이어서 2011년 처음 원장이 되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보겠다. 교과부 우수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인 '4050 광명 마을선생'은 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했다.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랐고, 각 권역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의 위임이었다. 권한을 위임했을 때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이 됐다. 실무자 간 친밀감이 형성되니 그 네트워크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사업을 함께 구상했고, 이 사업들은 여러 시너지를 냈다. 결국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일을 덜 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일이 가동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 수원시와 경기도에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지역 내 기관들의 공모를 받거나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아두면 상호협조 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원시 2013년도 사업소개

2013년의 사업은 2012년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2012년 추진사업 현황으로 수원시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2) 학습공동체 조성, 3) 평생학습기관 활성화, 4)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5)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 이 다섯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013년도 사업소개

평생교육을 관할하는 기관체계를 먼저 설명해드리겠다. 국가평생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상위에 있고, 진흥원에서는 개별 평생학습도시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를 연결하



는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도 평생교육진흥원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 1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타 도 진흥원과 차이점이 있다면 경기 창조학교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이 경기도를 창의인재, 창조교육의 허브지역으로 만들어보고자 해서 도에서 창조학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진흥원으로 이관되어 왔다.

지난 2012년도에는 경기주도형평생교육 모델링을 위한 여덟 개의 과제와, 경기도창조인재양성을 위한 여섯 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했다. 이 자리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2013년도에 할 관련 사업으로는 1) 도민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허브기능 수행과 2) 균형 발전적인 평생교육 추진 및 학습생태계 조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모인 지역실무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와 시의 사업취지와 개괄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업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03 말하기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가 소개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사업 소개를 듣고 우리의 네트워크 실황은 어떤지, 수원 지역에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가 적합한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놓여 있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 중 몇 가지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수원은 인구수가 많고 큰 도시라, 구만 해도 큰 범위다. 광명시의 사례를 듣고

구 안에서도 권역별로 쪼개 소모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앞서서 할 것인가는 몰음표다.

- 똑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각 기관은 경쟁관계가 되는데 순수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실무자들의 문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들이야말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네트워크를 추진하려는 실무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4 생각하기

4차 포럼 후기

거버넌스는 권한의 위임이자 책임의 공유다 박지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무언의 칠교놀이'로 시작한 4차 와글와글 포럼. 팀을 나눠 게임이 진행, 우리 팀이 꼴찌를 해서 살짝 무거운 마음으로 포럼을 시작하였다.

이번 학습은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실천방법이란 주제로 광명시평생 학습원 신민선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셨다. 참석자들이 빙 둘러앉아 마치 선배님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이 진행되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네트워크. 광명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원도 와글와글 포럼을 시작으로 더 넓고 깊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두 번째 시간에는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최라영 선생님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소영 선생님께서 현재 시와 도의 평생학습관련 사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관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함께 학습한 분들과 정해진 틀이 없는 네트워크 및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달 학습모임을 기약하며 4차 와글와글 포럼을 마쳤다.

레크리에이션 - 무언의 칠교놀이

칠교놀이는 동양의 퍼즐 놀이 중 하나로, 큰 정사각형을 직각이등변삼각형과 정사각형 등 총 7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두 사용해 모양을 만드는 놀이이다. 7개로 나뉜 조각이 한 세트이며, 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7개의 조각을 모두 사용한 후 다른 조각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7개의 조각 중 하나 이상의 조각을 빼서도 안 된다.

4차 포럼에서 활용한 무언의 칠교놀이는 일반적인 칠교놀이와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모두에게 7개의 조각이 제공되나 모두 동일한 조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개인작업과 함께 상대방과 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각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모두가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끝나는 협동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사전준비

1. 인원수대로 칠교조각 세트를 준비한다.

현장진행

1. 간단하게 무언의 칠교놀이의 취지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설명한다.
2. 모두가 동일한 조각의 개수를 가져야 정사각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3. 작업이 다 끝난 조는 함께 손을 들어 마무리가 되었음을 진행자에게 알린다.
4. 작업을 끝내지 못한 조는 다른 조의 결과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평생 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

목적

- 유럽의 평생학습의 방향성과 최근 흐름, 프랑스 평생학습 기관 운영형태를 알 수 있음
-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현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파악함
- 3차 평생학습진흥계획의 비전과 목표, 방향을 이해하고 현장 실무자의 역할을 설정함

일시 2012년 12월 13일 (목) 13:30-18:00

장소 수원시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및 진행
13:30~14:00	등록 / 참가자 간 인사 나누기	
14:00~16:00	[강의 1] 프랑스의 평생학습 현장을 듣는다	전현주
16:00~17:30	[강의 2]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	최운실
17:30~18:00	[네트워크 파티] 한 해 마무리	



강사

전현주

프랑스 낭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강사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2010.11~현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1997~2010)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겸 회장(2008~2010)
한국평생교육학회 제24대 회장(2006~2008)

01 몸 풀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웬지 이번 해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살펴보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 달이다. 와글와글 포럼도 꼬박 꼬박 매달 진행하기를 1년. 이번 5차 포럼에서는 프랑스의 평생학습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를 진단해보고, 대한민국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살펴며 현장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5차 포럼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은 직업인으로서의 나와 지금 우리에게 놓인 사회를 함께 돌보는 시간이었다.

예의 빠지지 않는 몸 풀기 게임으로 1차 포럼 때 해보았던 픽셔너리(그림으로 설명하기)를 변형하여 진행해보았다. 1차 포럼 참가자 중 하나가 이미 배운 기본적인 픽셔너리의 진행방식을 설명한 뒤,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사회자가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통상의 픽셔너리는 조에서 그림을 그릴 한 명을 선발해 그에게만 제공되는 단어를 그림으로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명만 단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팀원들이 힘을 합쳐 그림으로만 단어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팀원 간의 인식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픽셔너리와 동일하지만, 이 차이 속에서도 팀원들이 인식의 폭을 줄여가면서 한 사람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놀이다.

가벼운 몸 풀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갔다.



02 듣기

궁금해서 한 번 쬐은 들어보고 싶지만 쉽게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해외 평생학습 사례. 이번 5차 포럼에서 낭트대학교 교육연구소에 계시는 전현주 연구원에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다.

프랑스의 평생학습 현장을 듣는다

각 국가 별 평생학습을 살펴보기 전에 그 국가의 역사와 처해진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시간 관계 상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프랑스의 평생학습은 유럽의 평생학습과 방향을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평생학습의 주요 의제는 '다른 나라를 향한 이동(Mobility) 촉진'과 '다언어(Multilingualism) 정책',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시야를 넓힘으로서 열린 마음과 배려를 갖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엔 평생학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프랑스의 평생학습기관 두 군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겠다. 제가 안내할 곳은 Saint-Herblain의 La Maison des Arts(이하 예술의 집)과 프랑스 낭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낭트대 평생교육원)이다. 예술의 집은 1) 교육청, 의회, 지역문화시설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연계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2) 평생학습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낭트대 평생교육원은 수백 개의 강연과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강좌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많다.

03 말하기

강의가 끝난 후 다과를 곁들인 마무리 파티를 진행했다. 그 동안의 수고를 격려하고 한 해 동안 맺게 된 인연을 축하하며 한 걸음 더 발전할 내년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내년 와글와글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가벼운 대화를 진행했다.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 학교(<http://nuguna.suwonedu.org>)에서 요리 노하우를 나누는 수원시민 김수영 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유과, 식혜 등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2012년 와글와글 포럼의 공식적인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04 생각하기

5차 포럼 후기

끝나지 않는 배움의 길

이주아 (소통엔감성코칭)

찬바람이 콧등을 스쳐도 좋은 날,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열정이 녹아 들어간 ‘와글와글 포럼’이 있는 날이다. 얼마 전 폭설이 내리고 길은 얼어 있지만 평생학습 실무자님들과 평생교육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 더욱 설레는 마음을 안고 수원시 평생학습관으로 달려갔다.



와글와글 포럼은 지난 따스한 4월부터 눈보라가 휘날리는 12월까지 이성엽 단장님의 주도로 평생교육 실무자들이 실무능력 향상, 기관 홍보, 마케팅, 기획, 네트워크 등을 함께 공부했다.

본 강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그동안 포럼 진행을 도맡아 온 이민영 선생님은 지난 4월 첫 시간에 진행되었던 ‘픽서너리’를 새롭게 구성해서 진행했다. 픽서너리는 각조에 주어진 ‘단어’를 그림으로만 설명하고 숫자나 말은 하지 않고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간만에 모인 기관 관계자들의 친목을 위해 준비된 ‘픽서너리’에 우리 조는 ‘적응’이라는 주제가 주어졌고 마음까지 동원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맞추지 못했다. 픽서너리를 통해 말과 숫자를 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특별히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낭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이신 전현주 박사님이 먼저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열정적이며 프랑스와 대한민국을 모두 사랑하시는 전현주 박사님은 프랑스를 이해하기에 앞서 유럽전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 하시면서 간략하게 프랑스의 대학 체계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평생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며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를 주제로 한국은 뱃속에서부터, 프랑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은 죽어서도 교육은 계속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유럽연합(EU) 평생교육방향 핵심은 이동성(Mobility), 공평성(Equity), 사회결속력(Social Cohesion),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중시, 교육에서의 창의력(Creativity), 혁신성(Innova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 나라와 협력정



책(Policy Cooperation in Lifelong learning)을 통해야만 선진국 형 평생교육의 꽃을 꽃 피울 수가 있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프랑스 평생학습현장사례로 0살에서 99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생페르블랑시 “라메종 데 자르 (예술의 집)”을 소개해 주셨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이 음악, 조형예술, 디지털 예술을 배우고 창작 활동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술 분야 간 어른과 아이, 음악, 춤, 무용 등이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멋지고도 신기해서 우리나라도 시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사례로 ‘낭트대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셨는데 비학위 과정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인정되는 Formation Continue(계속교육)은 직업인의 ‘경험 학습’을 인정해서 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교육이다. 직장 실무경험의 시간에 따라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정책이었다. 낭트대학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은 300여개의 강연, 350개 과목의 강좌, 아틀리에가 있고 7,500명의 학생이 다니고 현장학습, 국제세미나등도 열리는 거대한 교육 공간이었다. 우리나라와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 나는 느낌이었을까??!

프랑스에서는 요즘 국내현장답사여행과 해외문화여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전현주 박사님은 시대에 걸맞게 평생교육도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라고 강조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뒤이어 우리들의 평생교육 대모이신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강의장으로 들어오셨다. 언제나 포근한 미소와 따스함으로 다가오시는 최운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두가 맞이했다. 원장님께서 “수원시평생학습관 와글와글 포럼, 이 시대, 평생교육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우리들의 이유 있



는 반란'을 예로 드시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내실화를 다지고 철저한 정예화를 만들어 국가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실무자를 양성하시겠다고 다짐하셨다. 실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필자도 잘 사용 못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내실화를 다져주신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평생교육사의 자부심이 다시금 불끈 솟았다.

평생교육사의 자질로는 새로움과 다름을 이해하며 잭 웰치와 앨빈 토플러를 예로 드시며 '실무자는 일함에 있어 능력을 최고로 올려야 하며 목표를 알고 가만 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며 일을 함에 있어 목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셨다. 실무자는 언제나 배운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내려놓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지길 당부하셨다. 겸손, 가장 아름다운 미덕!! 성인교육자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편지에는 프레일리 선생님을 예로 드시며, 진정한 성인교육자는 "삶을 즐겁게, 겸손, 사랑, 용기, 관용, 결단력, 인내와 조급함의 긴장 조율, 말의 절제를 통한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다.

최운실 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NILE, 7가지 행복 키워드'로 뿌리, 동행, 창조, 도움, 적립, 다음, 성장의 7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따줄 내게 맞는 평생교육 찾기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알뜰살뜰한 개미형-학점은행제', '끈기 있는 오투기형-독학 학위제', '멀리 내다보는 기린형-평생학습계좌제'등을 다채롭게 보여주셨다. 평생교육을 받으면 젊어지고 유능해진다고 인터넷서널 택시기사 유승호 사장님과 실버 바리스타 노정열 사장님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실로 멋진 두 분 모습에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필자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졌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실무자는 배움, 키움, 나눔, 이음을 잊지 말고 학습하는 인간, 배움을 구하는 인간으로 멋지게 소통하는 실무자로 성장하도록 탐색하면 더 성장하는 나를 발견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얕의 깊이와 철학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게 해준 전현주 박사님과 평생교육의 대모 최운실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평생교육인 '영원히 끝나지 않은 배움의 길'에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고 행복한 날이다.

연말이라 강의가 끝난 후 떡 케이크와 한과, 음료를 나누며 2012년 와글와글 포럼은 막을 내렸다. 2013년 한 뼉 더 성장한 실무자들의 와글와글 포럼을 기대 해본다.

와글와글 포럼 2013년 방향

1 2013년 와글와글 포럼에서

1-1. 가장 우선해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 1순위. 교과과정(커리큘럼) 개발
- 2순위. 지역 및 주민 요구 파악 및 분석
- 3순위.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 4순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순위. 기획서 및 제안서 작성

1-2. 운영 형태에 변화를 준다면 선호하는 방식은

- 1순위. 월 1회 씩 매월하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 2순위. 주 1회 씩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 3순위. 주 2~3회 등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 4순위. 1박 2일, 2박 3일 등 먹고 자면서

1-3. 집중 포럼을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 선호하는 달 : 1월 > 2,4월 > 10월 > 그 외 기타
- 기피하는 달 : 12월 > 4,7,8,9월 > 그 외 기타

나오며

편집후기
2012 와글와글 포럼이 우리에게 남긴 것
함께 하는 사람들

편집후기



와글와글 포럼 추진위원

유승이(장안구민회관 주임)

직업능력계발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 웃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자아계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프로그램 수, 이용인원수, 수입과 지출 비교 등 구체적인 실적이라는 잣대로 평생교육사로서의 마음가짐을 흐려놓은 채 하루, 한 달, 수년 동안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다.

평생교육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했을 법한 업무적인 한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업무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갈망, 이때 수월 평생학습 와글와글 포럼은 나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하는 것 같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지만 정작 담당자로서 관련 분야의 교육기회가 여의치 않았던 터라 와글와글 포럼은 반갑기까지 했다.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시작으로 평생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실무자의 비전으로 마무리된 포럼은 각 교수님의 강의 후 토론 진행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좋은 강의를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평생교육관계자와의 토론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포럼은 공통된 과제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었고, 학습관을 나섰을 때 나의 마음은 무언가로 재충전되었다.

이론과는 다르게 기관 특성에 따라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한동안 잊고 있었던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와글와글 포럼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포럼을 기대해 본다. 끝까지 포럼에 참여하신 평생교육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글와글 포럼 추진위원

이민영(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개관을 준비하며,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에 또 하나의 거대공룡이 아닌 실무자들을 위한 느티나무가 되겠다는 의지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맘 흘려 노력하는 실무자들 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하며 탄생한 것이 “와글와글 포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입으로 말해보고,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와 평소에 간질간질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들어보고, 현장에서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꺼내놓고 왁자지껄 떠들어보고, 거대담론을 말하기보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에서 와글와글 포럼은 시작됐습니다.

작수 달 격월로, 포럼을 홀수 달 격월로 모임을 진행하며 자주 만나고 부딪치는 것이 2012년 한 해의 과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하다 문득 아무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누구에게 수화기를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목표 아닌 목표였는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돌아켜봅니다.

와글와글 포럼 추진위원으로 한 해 동안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데, 작지만 귀한 1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어망 같은 수원 평생학습의 네트워크가 와글와글 포럼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와글와글 포럼 추진위원

임복희(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키 큰 나무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물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처음 와글와글 포럼 준비 논의를 하던 때가 살랑살랑 꽃바람 부는 4월 초였는데, 어느새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12월이 되었네요. 와글와글 포럼은 기획하는 단계부터 신선하게 느껴졌었지요. 초기 기획은 학습관에서 하였지만 추진단을 통해 논의하면서 모양을 다듬어가고 소통하는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소통과 논의의 과정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담당자의 품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기에 더 좋은 와글와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와글와글 포럼은 평생학습과 관련한 실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동향과 새로운 사례를 접하며 수원시 평생학습 활동가의 생각을 키워내고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 된 것 같아요. 매 과정마다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우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수원시 평생학습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 수원시 평생학습 활동가들을 네트워크하여 향후 수원시 평생학습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생각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충실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

한 곳에 모여서 자꾸 떠들거나 움직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 와글와글,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함께 성장하는 포럼으로 쪽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와글와글 포럼 추진위원
최리영(수원시청 평생교육사)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평생학습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바로 실무자들이다. 학습자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학습경험, 그들의 나이, 성별 등의 개인 인적요소 등 서로 다른 특성과 능력을 보유한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을 매개로 조금 더 질적인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한 촉매제의 역할과 더불어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적으로 실무자들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배움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평생학습도시의 이름에 걸맞은 수원시만의 특화된 실무자 역량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와글와글 포럼을 통하여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와글와글 포럼은 현장에서의 필요한 직무에 대해 배우고, 교육 활동에 관한 현황들과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나누며,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소통과 배움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수원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로서 와글와글 포럼이라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꿈을 가져본다.



2012 와글와글 포럼이 우리에게 남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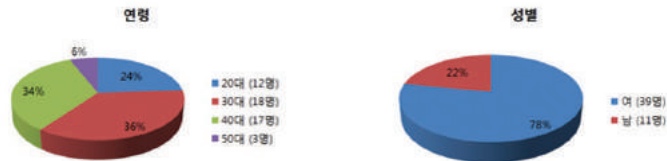
와글와글 포럼 5회 (4, 6, 8, 10, 12월)
학습모임 4회 (5, 7, 9, 11월)

2012년 와글와글 포럼 전반 평가

문항	평점 (5점척도)
포럼은 기대했던 주제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4.71
포럼에서는 내게 필요한 내용을 다루었다.	4.50
지금의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에 2012년 포럼의 형태와 시간은 적합했다.	4.29
워크숍 및 논의는 의견공유에 도움이 되었다.	4.38
강의실 등 환경이 교육받기에 적합했다.	4.36
교재가 포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5
전반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4.64
이 포럼을 지인에게 추천 또는 권유하겠다.	4.55
앞으로도 포럼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4.45

참석자

참여인원 총 50명 (추진단장 및 학습모임 별도 참가자 제외)
누적참가자수 1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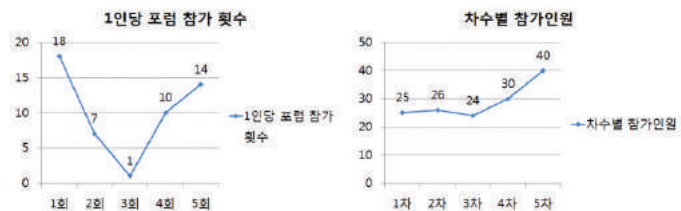


연령

20대 12명, 30대 18명, 40대 17명, 50대 3명

성별

여 39명, 남 11명



- 기관의 현황과 지역 의제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조성
-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시적인 논의의 장 준비

3 실무자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과 자세 습득

- 선정된 4개 주제에 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 청취
- 워크숍을 통해 교육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
- 오리엔테이션 및 레크리에이션 등 강의 및 진행 도구와 방법론 습득